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성모^{1),2)}, 박 종³⁾, 류소연³⁾, 한미아³⁾, 최성우³⁾, 최성수⁴⁾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¹⁾, 청암대학교 응급구조과²⁾,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³⁾,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⁴⁾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Sung Mo Moon^{1),2)}, Jong Park³⁾, So Yeon Ryu³⁾, Mi Ah Han³⁾,
Seong Woo Choi³⁾, Sung Soo Choi⁴⁾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¹⁾,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Cheongam College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Medical School³⁾,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Howon University⁴⁾*

=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Methods: The subjects include 293 maritime police officers that received basic and professional education at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on June 17~July 31, 2019. Data was analyzed in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varianc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Version 21.0 program.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scored mean 39.72±16.56 points in posttraumatic growth. marital status($\beta=.194$, $p=.002$), smoking($\beta=.152$, $p=.010$), regular exercise($\beta=-.185$, $p<.001$), total duration of service($\beta=-.154$, $p=.033$), resilience($\beta=.310$, $p<.001$), social support ($\beta=.250$, $p<.001$), and collective culture($\beta=.158$, $p=.004$) had impacts on their posttraumatic growth.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was under the influence of supports from families and peers, working environment, and culture as well a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 Words: Organizational culture,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 Received November 9, 2020; Revised November 27, 2020; Accepted December 10, 2020.

* Corresponding author: 최성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eong Woo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Medical School,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344, Fax: +82-62-225-8293, E-mail: jcs74@hanmail.net

* 본 논문은 2020년 조선대학교 보건학 박사학위논문입니다.

서 론

해상에서의 치안활동을 관장하는 해양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충격사건을 경험하는 빈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생명·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당하거나 목격하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1]. 2016년 해양경찰 PTSD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3%가 완전 PTSD, 17.4%가 부분 PTSD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중 54.6%가 근무 중 충격사건을 경험하였으며, 한 달에 평균 6.6회의 충격사건에 노출 된다고 하였다[2]. 충격사건 경험으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서적인 고통,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떠올림, 악몽 등 충격사건을 재 경험하고, 충격사건에 대한 반응을 둔감 시키며, 무력감, 기억손상, 더 나아가 우울 및 자살까지 이어지게 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동반한 다양한 충격사건 경험을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와 병리적 증상에 초점을 둔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질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충격사건 경험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성장에 이르게 하는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PTG)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4]. 외상 후 성장이란 한 인간이 삶을 위협하는 심리적·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후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고[5], 이는 외상 경험 이전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수준의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자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성장을 의미한다[6].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7], 경찰공무원[8] 등 심하거나 경한 충격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 연구는 미흡하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다고 하였고[4],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또한 높다고 하였다[9]. 사건·사고 현장의 최초 반응자로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이 겪는 충격 사건은 직무 특성상 종류나 심각성이 다양하고 대부분 근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과는 다르며[7], 충격사건 경험으로 인하여 직업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여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기본 교육(경사·경위) 2개 과정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해양경비상황의 이해, 해양수색구조, 현장감식 전문, 수사경찰 양성) 4개 과정,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제어시스템 역량 강화, 수상구조사 자격취득, 2급 응급구조사 양성, 응급구조사 역량강화, 함정 수중탐색장비 운용, 해상무선통신사) 6개 과정의 교육생 34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전체 해양경찰공무원 중 선발되고 지역, 근무부서 등이 편중 되지 않아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해양경찰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26일 기간에 각각의 교육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총 347명 중 30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검토를 통해 답변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4부를 제외한 총 293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CA17-190523-HR-008-01).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월 소득의 인구학적 특성과 흡연여부,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다.

2) 직무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은 계급, 총 근무기간, 근무부서, 부서 근무기간, 경과를 조사하였다.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근무부서는 경찰청(경찰서), 경비합정, 파·출장소, 특수구조단(구조대 포함), 기타로 분류하였고, 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 1-2년, 3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경과는 해양경과, 수사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로 분류하였다.

3)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은 충격사건 경험 횟수, 충격사건 종류,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 예방조치 여부,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 여부, 충격사건 경험 후 지지자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

여부를 조사하였다. 월 평균 충격 사건 경험 횟수는 1회 미만, 1-2회, 3회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 예방 조치 여부,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 여부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 여부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4)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Song 등[12]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K-PTGI)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자각 변화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지각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 대인관계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을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 가능성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 종교 2문항으로 '전혀 경험 못함' 0점부터 '매우 많이 경험' 5점까지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Song 등[12]의 연구에서의 한국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는 .94 이었다.

5)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You[13]가 이용한 회복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u[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81이었다.

6)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Kim[14]이 수정 보완한 정서적 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총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으로 '전혀 아님' 1점 '매우 많이'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Kim[1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이었다.

7)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Yoon[15]이 이용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조직 내 가족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며,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상호 신뢰, 참여가 핵심인 집단문화 3문항, 조직의 성과 달성과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합리문화 3문항,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특히 조직이 당면하는 외부환경에의 적응성에 큰 강조를 두는 발전문화 3문항, 명령·규칙에 의한 규제와 질서의 강조가 중심 가치가 되면서, 조직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위계문화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Yoon[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4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ver.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t-검정과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90.4%(265명), 여자 9.6%(28명) 이었고, 나이는 20-29세 23.2%(68명), 30-39세 43.7%(128명), 40대 이상 33.1%(97명)였다. 결혼여부는 미혼 36.5%(107명), 기혼 63.5%(186명)이었고, 교육수준은 고졸 22.9%(67명), 전문대학 졸업 15.4%(45명), 대학교 졸업 54.3%(159명), 대학원 7.5%(22명)였다.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 27.3%(80명), 300-399만원 24.6%(72명), 400-499만원 24.2%(71명), 500만원 이상 23.9%(70명)이었고, 흡연은 흡연 21.8%(64명), 과거흡연 19.1%(56명), 비흡연 59.0%(173명)였다. 음주여부는 음주 68.9%(202명), 비음주 31.1%(91명)이었고, 규칙적 운동여부는 한다 69.3%(203명), 안한다 30.7%(90명)였다. 수면시간은 6시간 이하 54.3%(159명), 7-8시간 41.6%(122명), 9시간 이상 4.1%(12명)였고,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나쁨 12.3%(36명), 보통 24.2%(71명), 좋음 63.5%(186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0-29세 45.80±11.12점, 30-39세 35.02±16.35점, 40세 이상 41.64±18.2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결혼여부는 미혼 43.06±14.09점, 기혼 37.79±17.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9$), 흡연여부는 흡연 34.71±16.96점, 과거 흡연 37.41±16.32점, 비흡연 42.31±16.0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3$). 음주여부는 음주 38.41±17.25점, 비음주 42.61±14.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44$), 규칙적 운동여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41.04±16.89점, 하지 않는 경우가

36.72±15.4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9). 수면시간은 6시간이하 37.93±17.65점, 7-8시간 40.81±15.18점, 9시간이상 52.16±6.3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0). 성별, 학력, 월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는 외상 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계급은 순경 28.0%(82명), 경장 30.7%(90

명), 경사 22.5%(66명), 경위 이상 18.8%(55명)였고,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 43.7%(128명), 6-10년 25.3%(74명), 11년 이상 31.1%(91명)이었다. 부서는 경찰서 17.1%(50명), 경비합정 57.0%(167명), 파·출장소 7.8%(23명), 특수구조단(구조대 포함) 12.6%(37명), 기타 5.5%(16명)였고, 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 47.4%(139명), 1-2년 45.1%(132명), 3년 이상 7.5%(22명)이었다. 경과는 해양경과 69.3%(203명), 수사경과 3.1%(9명), 정보통신경과 3.8%(11명), 특임경과 23.9%(70명)이었다.

Table 1.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p-value
Gender	Male	265(90.4)	39.44 ± 16.67	0.383
	Female	28(9.6)	42.32 ± 15.56	
Age(year)	20-29	68(23.2)	45.80 ± 11.12	<0.001
	30-39	128(43.7)	35.02 ± 16.35	
	≥40	97(33.1)	41.64 ± 18.29	
Marital status	Single	107(36.5)	43.06 ± 14.09	0.009
	Married	186(63.5)	37.79 ± 17.58	
Education	High school	67(22.9)	42.86 ± 11.72	0.094
	College	45(15.4)	39.24 ± 14.24	
	University	159(54.3)	37.85 ± 17.73	
	≥Graduate school	22(7.5)	44.59 ± 22.54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80(27.3)	41.93 ± 13.63	0.104
	300-399	72(24.6)	36.65 ± 16.79	
	400-499	71(24.2)	37.97 ± 17.48	
	≥500	70(23.9)	42.11 ± 17.99	
Smoking	Current	64(21.8)	34.71 ± 16.96	0.003
	Former	56(19.1)	37.41 ± 16.32	
	Never	173(59.0)	42.31 ± 16.04	
Drinking status	Yes	202(68.9)	38.41 ± 17.25	0.044
	No	91(31.1)	42.61 ± 14.58	
Regular exercise	Yes	203(69.3)	41.04 ± 16.89	0.039
	No	90(30.7)	36.72 ± 15.46	
Sleeping (hr/day)	≤6	159(54.3)	37.93 ± 17.65	0.010
	7-8	122(41.6)	40.81 ± 15.18	
	≥9	12(4.1)	52.16 ± 6.36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36(12.3)	40.72 ± 17.21	0.386
	Fair	71(24.2)	38.23 ± 16.59	
	Good	186(63.5)	37.47 ± 12.49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계급은 순경 43.57±12.71점, 경장 33.02±16.17점, 경사 37.83±17.86점, 경위이상 47.20±16.3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 41.83±14.25점, 6-10년 32.01±16.80점, 11년 이상 43.01±17.55점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현재 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 43.02±16.18점, 1-2년 36.03±15.48점, 3년 이상 40.95±20.9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근무부서, 경과는 외상 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Table 2).

Table 2.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in traumatic event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p-value
Ranks	Police officer	82(28.0)	43.57 ± 12.71	<0.001
	Senior police officer	90(30.7)	33.02 ± 16.17	
	Assistant inspector	66(22.5)	37.83 ± 17.86	
	≥Inspector	55(18.8)	47.20 ± 16.33	
Total duration of employment at maritime police	≤5	128(43.7)	41.83 ± 14.25	<0.001
	6-10	74(25.3)	32.01 ± 16.80	
	≥11	91(31.1)	43.01 ± 17.55	
Job field	Police office	50(17.1)	38.54 ± 18.23	0.135
	Patrol vessel	167(57.0)	40.61 ± 15.81	
	Substation & Branch office	23(7.8)	41.69 ± 16.65	
	Special rescue unit	37(12.6)	40.40 ± 16.07	
	Others*	16(5.5)	29.68 ± 18.21	
Duration of employment at current department	<1	139(47.4)	43.02 ± 16.18	0.002
	1-2	132(45.1)	36.03 ± 15.48	
	≥3	22(7.5)	40.95 ± 20.92	
Job specialties†	Maritime	203(69.3)	40.88 ± 16.46	0.126
	Investigation	9(3.1)	42.66 ± 13.22	
	Info-communications	11(3.8)	31.18 ± 17.52	
	Mission specialist	70(23.9)	37.30 ± 16.74	
Number of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month)	<1	242(82.6)	38.84 ± 15.97	.041
	1-2	41(14.0)	42.04 ± 18.06	
	≥3	10(3.4)	51.30 ± 20.49	
Organizational precautions after traumatic events	Yes	49(36.4)	40.77 ± 17.42	.873
	No	102(67.5)	40.26 ± 18.74	
Psychological consultation after traumatic events	Yes	55(36.4)	44.72 ± 18.34	.028
	No	96(63.6)	37.96 ± 17.85	
Test for PTSD‡	Yes	45(15.4)	42.40 ± 20.70	.239
	No	248(84.6)	39.23 ± 15.69	
Experience of PTSD‡ related education	Yes	68(23.2)	41.60 ± 18.75	.286
	No	225(76.8)	39.15 ± 15.84	

* Sea special attack team & Aviation division

† Types of police officers classified by their duties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3. 대상자의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과 충격사건 경험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한 달간 충격사건 경험 횟수는 1회 미만 82.6%(242명), 1-2회 14.0%(41명), 3회 이상 3.4%(10명)였고,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의 예방조치가 있었던 경우가 36.4%(49명), 예방조치가 없었던 경우가 67.5%(102명)이었다.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가 36.4%(55명),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가 63.6%(96명)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를 받은 경우가 15.4%(45명),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84.6%(148명)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23.2%(68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76.8%(225명)이었다.

대상자의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충격사건 경험 횟수는 1회 미만 38.84±15.97점, 1-2회 42.04±18.06점, 3회 이상 51.30±20.4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41),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44.72±18.34점,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37.96±17.8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8).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 예방 조치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Table 2).

4. 외상 후 성장 및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

직문화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39.72±16.56점 (0-80점 범위)이었고, 회복탄력성은 평균 84.46±9.85점 (27-135점 범위)이었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86.16±16.21점(25-125점 범위)이었고, 조직문화의 하위영역 중 위계문화가 평균 10.96±2.00점(3-15점 범위)로 가장 높았다(Table 3).

5.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은 관련 변수인 회복탄력성(r=0.552, p<0.001), 사회적지지(r=0.478, p<0.001), 집단문화(r=0.368, p<0.001), 합리문화(r=0.292, p<0.001), 발전문화(r=0.203, p<0.001), 위계문화(r=0.166, p=0.00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6.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상 후 성장에 결혼여부는 기혼인 경우 보다 미혼인 경우(β=0.194, p=0.002), 흡연여부는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비 흡연인 경우(β=0.152, p=0.010)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β=-0.185, p<0.001),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인 경우보다 6-10년의 경우(β=-0.154, p=0.033)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회복탄력성(β=0.310, p<0.001), 사회적지지(β=0.250, p<0.001), 집단문화(β=0.158, p=0.004)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5).

Table 3. Degrees of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N=293)

Variables	Mean±SD	Range	Item Mean±SD
Post traumatic growth	39.72 ± 16.56	0 - 80	2.48 ± 1.03
Resilience	84.46 ± 9.85	27 - 135	3.12 ± 0.36
Social support	86.16 ± 16.21	25 - 125	3.44 ± 0.64
Group culture	9.50 ± 2.26	3 - 15	3.16 ± 0.75
Rational culture	10.79 ± 1.94	3 - 15	3.59 ± 0.64
Developmental culture	9.61 ± 1.95	3 - 15	3.20 ± 0.65
Hierarchical culture	10.96 ± 2.00	3 - 15	3.65 ± 0.66

Table 4. Correlation among Post-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N=293)

Variables	V1	V2	V3	V4	V5	V6
V2	0.605 (<0.001)	1				
V3	0.310 (<0.001)	0.317 (<0.001)	1			
V4	0.490 (<0.001)	0.461 (<0.001)	0.351 (<0.001)	1		
V5	0.249 (<0.001)	0.317 (<0.001)	0.493 (<0.001)	0.349 (<0.001)	1	
V6	0.251 (<0.001)	0.332 (<0.001)	0.236 (<0.001)	0.402 (<0.001)	0.217 (<0.001)	1
V7	0.552 (<0.001)	0.478 (<0.001)	0.368 (<0.001)	0.292 (<0.001)	0.203 (<0.001)	0.166 (0.004)

V1: Resilience ; V2: Social support ; V3: Group culture ; V4: Rational culture ; V5: Developmental culture ; V6: Hierarchical culture ; V7: Post traumatic growth

고찰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39.72±16.56점이었었다. 이는 충격사건 경험과 집단 특성 차이가 다르고, 측정 도구에서도 차이가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소방공무원 46.31±17.20점[7], 경찰공무원 44.58±12.80점[8] 보다 낮았다. 경찰청의 경우 마음동행센터 운영을 통한 마음 건강 회복을 촉진[16]하고 소방청의 경우에는 관서 단위별 예방교육 프로그램[17] 등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외상 후 성장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경찰공무원의 회복 탄력성은 3.12±0.3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3.24±0.30점[1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력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높다고 하였다[18]. 회복탄력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원도 필요하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직무 환경에 의해 충격사건에 빈번하게 노출이 되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44±0.64점 이었다. 이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64±0.61점[19]의 연구 결과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개인 성격특성에 따른 수용 정도와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해양경찰의 경우 잦은 출동과 경비함정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주일 이상 보내는 근무 특성상 가족과 함께 교류를 통한 긍정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사항을 가정에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사회적 지지 효과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광활한 바다에서 1주 이상 제한적이고 고립된 생활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직장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해양경찰 조직의 권위적이고 조직 구성원들 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지지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4.931	8.560		-5.249	<0.001
Age (/20-29)					
30-39	-3.963	2.745	-0.119	-1.443	0.150
≥ 40	2.957	3.845	0.084	0.769	0.443
Marital (/Married)	6.667	2.151	0.194	3.099	0.002
Education (/≥Graduate school)					
High school	-0.396	3.279	-0.010	-0.121	0.904
College	-2.007	3.232	-0.044	-0.621	0.535
University	0.098	2.841	0.003	0.035	0.972
Smoking disease (/Current)					
Former	-0.787	2.336	-0.019	-0.337	0.736
Never	5.123	1.969	0.152	2.601	0.010
Drinking status (/Yes)	3.425	1.774	0.096	1.931	0.055
Regular exercise (/Yes)	-6.623	1.626	-0.185	-4.074	<0.001
Sleeping (/≤6)					
7-8	0.001	1.494	0.000	0.001	0.999
≥ 9	4.760	3.973	0.057	1.198	0.232
Ranks (/Police officer)					
Senior police officer	1.306	2.898	0.036	0.451	0.653
Assistant inspector	2.486	3.869	0.063	0.643	0.521
\geq Inspector	6.850	4.657	0.162	1.471	0.143
Total duration of employment at maritime police(/≤5)					
6-10	-5.518	2.573	-0.154	-2.144	0.033
≥ 11	1.157	3.958	0.032	0.292	0.770
Duration of employment at current department(/<1)					
1-2	0.550	1.645	0.017	0.334	0.738
≥ 3	0.483	3.081	0.008	0.157	0.876
Number of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s(/<1)					
1-2	1.111	2.285	0.023	0.486	0.627
≥ 3	6.600	4.020	0.072	1.642	0.102
Psychological consultation after the experience in traumatic event(/Yes)	-0.227	1.767	-0.006	-0.128	0.898
Resilience	0.522	0.098	0.310	5.350	<0.001
Social support	0.255	0.059	0.250	4.301	<0.001
Group culture	1.158	0.396	0.158	2.923	0.004
Rational culture	0.522	0.491	0.061	1.064	0.288
Developmental culture	-0.580	0.364	-0.084	-1.593	0.112
Hierarchical culture	0.212	0.428	0.026	.494	0.621

R=0.752, R²=0.565, F=12.254, P<0.001, Durbin-Watson=1.855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 하위영역 중 위계 문화가 3.65 ± 0.66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문화가 3.16 ± 0.75 점으로 가장 낮았다. Lee와 Choi[20]의 연구에서도 위계문화가 3.43 ± 0.73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문화가 2.78 ± 0.78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해양경찰의 조직문화 하위영역 중 집단 문화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조직 내 관계 지향 문화가 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여부, 흡연여부, 규칙적인 운동 여부, 총 근무기간,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중 집단문화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보다 미혼인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외상 후 성장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미혼자의 경우 가정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고[21],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혼자에 비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여가활동을 즐긴다[22]. 기혼자가 가정관리를 하는 시간 동안 자기개발을 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이 완화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여부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흡연이 정신·심리상태 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나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정신·심리적으로 안정되며[23], 비 흡연자의 경우 흡연자에 비해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24]을 끼쳐 외상 후 성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운동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방법 중 가장 선호되어지는 방법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심리적으로 중재 및 조절하고 인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정신건강에도 효과적이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25]. 본 연구 대상자는 비교적 신체 기능

저하가 없고, 신체 활동이 활발한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총 근무기간은 6-10년의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중간 계층인 6-10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은 업무 현장에서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경우는 경력이 낮을수록 외상이나 충격에 대한 강도가 높고 심해 그에 따른 외상 후 성장도 크다고 하였고[26],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의 경우 경력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업무에 대한 익숙함과 능숙함이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와 복지 혜택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하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충격사건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요소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개인의 능력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다면체적 성향을 띄고 있다[27]. 역경을 겪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회복탄력성이 충격사건 경험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반응하고 회복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지지는 충격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며,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28]. 충격사건 등을 경험한 자신이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 인해 완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나 주변의 대인관계를 통한 지지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 등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지

지는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나 지지 등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문화의 하위영역 중 집단문화로 인식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집단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통하여 참여 의식이 높고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어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이다[29]. 집단문화로 인식할수록 가족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위기의 문화가 조성이 되고 동료들 간의 협력과 배려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조직구성원들이 공식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안정성을 강조는 위계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단문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위계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문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따라서 업무 수행 중 충격사건 등을 경험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근한 조직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의 경우 충격사건 경험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직원상담, 해양경찰관 동료상담사 양성,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과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없고, 경찰관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인해 스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 한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사후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2].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외상 후 성장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각 경찰서 별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보편화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기본 교육 및 전문 교육을 받은 해양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의 해양경찰공무원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충격사건 경험 후 대상자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단면연구 형태로 수행되어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사건 이후 질병으로 이환이 아닌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직무 특성상 충격사건에 빈번히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선행 연구가 없었던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학문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요 약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해양경찰관 29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과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39.72±16.56점이었고, 회복탄력성 평균 84.46±9.85점, 사회적지지 평균 86.16±16.21점, 집단문화 9.50±2.26점, 합리문화 10.79±1.94점, 발전문화 9.61±1.95점, 위계문화 10.96±2.00점이었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여부($\beta=0.194$, $p=0.002$), 흡연여부($\beta=0.152$,

p=0.010), 규칙적인 운동여부($\beta=-0.185$, $p<0.001$), 총 근무기간($\beta=-0.154$, $p=0.033$), 회복탄력성($\beta=0.310$, $p<0.001$), 사회적지지($\beta=0.250$, $p<0.001$), 집단문화($\beta=0.158$, $p=0.004$)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6.5%이었다.

본 연구 결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 근무 환경 및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향후 스트레스의 완화를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가족 및 동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REFERENCES

1. Kim JG, Kim KH. Effects of traumatic event experience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korea maritime police SWAT.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2013;3(1): 3-23 (Korean)
2. Korea coast guard. Korea coast guard PTSD status survey. Dain. 2016 (Korean)
3. Lee OJ, Ji YH. Articles : The analysis of field police officer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for the application of police job stress reduction program.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2010;12(4):173-203 (Korean)
4. Song H, Lee YS. The effects of hardi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ost traumatic growth: active coping as a mediating variab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1;12(4):1231-1246 (Korean)
5. Tedeschi RG, Calhoun LG. The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96;9(3):455-71
6. Maercker A, Zoellner T. The janus face of self 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 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2004;15(1):41-8
7. Kwak MY, Bae JY. Post traumatic growth and related factors in fire fight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7;26(2):124-133 (Korean)
8. Lee JS, Park HS.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vocational calling on post traumatic growth in police offic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7;26(4):382-390 (Korean)
9. Jung YK, Choi ER,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post traumatic growth in korea police officers-focus on police officers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4;16(5):243-276 (Korean)
10. Kim SH, Lee MH. The degree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marine police officers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11):269-276 (Korean)
11. Lee KH, Moon JS. A study on the effects of PTSD on alcohol use disorders in maritime police offic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4;16(4):105-129 (Korean)
12. Song SH, Lee HS, Park JH, Kim K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14(1):193-214 (Korean)
13. You JS.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ime perspective [dissertation]. Nonsan, Konyang University, 2019 (Korean)

14. Kim YS.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5 (Korean)
15. Yoon SH. A study on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korea coast guard on work site applic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dissertation]. Seoul, Dongguk University, 2017 (Korean)
16. Kim KT. A study on th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management of correction officer. *The Police Science Journal* 2019;14(3):61-80 (Korean)
17. Fire Service Bureau. Operating plan of 2015 firefighter's counseling center. Seoul: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18. Ha BY, Jung EJ, Choi SY. Effects of resilienc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4;20(1):83-91 (Korean)
19. Moon Y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middle-aged police'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 concept and career adaptability [dissertation].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2018 (Korean)
20. Lee CA, Choi JM.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maritime police officers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engagement.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2019;16(1):69-99 (Korean)
21. Kim YK. Relationships between role overload and work engagement among employee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8 (Korean)
22. Yoon S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ingle people time use and leisure behavior: A comparison of single people an unmarried group and a married group.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2;20(6):209-217 (Korean)
23. Choi YH, Chae JH.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cigarette consumption, eating and mental psychological state among adolescents: based on 2013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7321-7328 (Korean)
24. Joo A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dual earner coupl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1;20(2):221-229 (Korean)
25. Paek hh, Lee sg. Factors related to physical activities of elderly with hypertens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5;40(2):62-71 (Korean)
26. Cho HM.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social support on post traumatic growth in stomach cancer patient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5 (Korean)
27. Shin WY, Kim MG, Kim JH.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9;20(4):105-131 (Korean)
28. Tedeschi RG, Calhoun LG. Post 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2004;15(1):1-18
29. Kim J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issertation]. Gunsan, Gunsan University, 2014 (Korean)